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2024.11.04-10

No.778



# K-공감

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 명 돌파

유·사산 휴가 10일로 늘린다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말기 환자의 마지막 친구, 노희원 자원봉사자

**“고독사 해결법?  
주변부터 살피세요!”**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





내일의 변화는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찾아갑니다. 다음의 100년,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 2024년 11월 8일~11월 27일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빈집 포함)  
※ 5~30년된 아파트는 제외

**조사방법** 거처와 가구 현장확인,  
일부 가구 면접조사

**조사항목** 가구와 주택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14개 항목)

**콜 센터** 080-2024-2024(무료)  
(오전 8시~오후 9시 주말 포함)

더 공감

## 내 인생의 흠어진 점들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 아홉 가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인생의 대부분을 하기 싫은 일로 보내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데도 가물가물할 지경이다. 얼마 전에도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겨우 끝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정을 불살랐더니 온몸이 녹아내린 기분이었다. 바닥 위에 굳어버린 찝찝처럼 꼼짝하지 않고 드러누워 쇼트폼만 본 지 일주일째, 찬송가를 부르는 앵무새와 두 발로 걷는 강아지를 보며 피식피식 웃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의 전부다. ‘뭔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나의 엄지손가락은 불수의근으로 이루어지기라도 한 듯 스마트폰 화면만 연신 쓸어올렸다.

그런 나를 일으켜 세운 건 일전에 잡아둔 친구와의 약속이었다. 이러한 내 처지를 푸념하려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으나 친구가 먼저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며 퇴사했지만 영상 조회 수가 저조하다는 것이었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그동안 내가 보아온 쇼트폼이 몇 개이더냐. 롱폼이 아닌 쇼트폼을 만들어나, 영상 상단에 주제를 써놓되 핵심 단어는 빈칸으로 남겨둬라,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영상에 등장하는 순간 슬로모션을 걸어라. 나는 혼수를 두는 걸로 모자라 영상 제작까지 거들었다. 며칠 후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고작해야 몇 십 언저리에 맴돌던 조회 수가 5000이 넘었다고 말이다.

“내가 말이야, 응? 쇼트폼을 보면서 논 게 아니라 자료 조사를 했던 거라 이 말이지.” 머쓱함을 감추려 부러 거드름을 피우는 내게 친구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잡스는 대학 시절 청강했던 타이포그래피 수업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때 배웠던 다양한 서체를 매킨토시 컴퓨터에 응용했다고 한다. 잡스는 이러한 경험을 ‘점’으로 비유했다. 과거에는 이 점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들은 분명하게 이어져 있었다고, 그러니 지금 하는 일들이 언젠가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다. “너나 나나 조바심 내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지금은 시간 낭비 같아도 언젠가는 다 도움이 되겠지 뭐.”

침대에 누워 친구의 메시지를 오래오래 들여다보았다. 좀처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전공과 직업을 몇 번이고 바꿔왔던 나날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받아온 잡다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엉망으로 흩뿌려진 점을 따라 이리저리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지만 그리하여 남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점마저 없었다면 길을 잃어도 진작에 잃었을 터였다. 느낌표처럼 길게 기지개를 켜다가 점처럼 둥글게 몸을 말았다. 잠을 청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스스로 눈이 감겨왔다. 하지만 이제 더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리. 지금 이 순간이 또 다른 출발점이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으랴. **[K]**



이주윤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린다.  
어쩌다 보니 맞춤법을 주제로 한  
책을 여러 권 출간했다.  
국어사전 속에서 온종일  
헤매는 일이 싫지 않은 걸 보면  
아무래도 체질인 듯하다.



## 파란만장 역사 품고 美 국가사적지 된 대한제국공사관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 1882년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통상 조약(조미조약·朝美條約)이다. 고종은 1888년 초대 주미외교관으로 박정 양 주미특명전권공사를 워싱턴 D.C.에 파견했다. 1889년에는 백악관에서 1.6km 거리에 있는 로건서클의 건물을 매입해 주미조선공사관으로 사용했다. 첫 재외 외교공관으로 현재는 워싱턴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할 때까지 16년 9개월간 다섯 명의 공사가 이곳을 지켰다. 결국 이 건물은 1910년 일본에 단돈 5달러에 강제로 빼앗겼다.

2012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중심으로 재미한인들의 모금과 국내 기업,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힘을 모아 350만 달러에 다시 사들여 소유권을 되찾았다. 복원 및 보수를 거쳐 2018년 '옛 대한제국공사관 박물관(Old Korean Legation Museum)'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다.

박물관 1층 정당(正堂)에는 한 장의 가족사진이 전시돼 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제2차 만국평화회의의 특사인 이범중(1884~?)이 아버지 이범진과 어머니 풍양 조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이범진은 1896년부터 1900년까지 주미공사를 지냈고 이후 주러시아공사를 지냈다. 1910년 대한제국이 국치를 당하자 귀국을 포기하고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범진은 고종황제와 후손에 남긴 유서에 '나라를 잃은 자는 머물 곳도 없고 편히 쉴 땅도 없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적었다.

19세기 워싱턴 D.C.에는 32개 외국 공사관이 있었다. 그중 현존하는 건물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유일하다. 컬럼비아 특별구 사적지 목록에 포함돼 있으며 올해 9월에 미국의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공식 등재됐다. **K**



### 강형원

1963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했다. UCLA를 졸업한 뒤 LA타임스, AP통신, 백악관 사진부, 로이터통신 등에서 33년간 사진기자로 근무했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풀리처상을 2회 수상했다.



이범진 주미공사의 가족사진.









2024.11.04-11.10

No.778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 K-공감

발행일 2024년 11월 4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프린피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표지사진 C영상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1

더 공감

이주윤

'내 인생의  
흔어진 점들'

02

강형원 기자의 문화유산 찾기

美 국가사적지 된  
대한제국공사관

06

커버스토리

## “고독사 해결법? 주변부터 살피세요!”

고독사 예방교육 앞장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

2023 고독사 연 3600여 명  
2명 중 1명은 5060남성

정책 돋보기

14

지금 용산은

“원전 생태계 정상화  
'원전 르네상스' 맞아  
원전 산업 수출길  
활짝 열 것”

19

알쓸정책

'소(牛)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외

23

정책 돋보기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화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 명 돌파

28

돈 되는 정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06







29

이 주의 키워드  
아파트(APT.)

30

포커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

34

포커스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했다!

37

이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10곳 추가



38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  
국내 거주 외국인 246만 명,  
대구 인구보다 많다

40

K-피플  
한국인 최초  
伊 오페라 페스티벌 연출 안주는

44

김형자의 친절한 과학정책  
바이오시밀러 vs 제네릭

46

어피티가 본 MZ 생각  
“연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50

작은 영웅들  
아주대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노희원 씨

54

문화  
국민과 함께 뽑은  
아름다운 민간정원 30곳

56

신기율의 마음 상담소  
20년 직장을 나와 제 사업을 하려 합니다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할까요?

58


여행이 있는 주말 로컬100 따라가기  
전남 담양군 3대 명품 숲

62

함께 즐기자  
‘2024 아리랑 세계를 잇다’외

64

독자 공감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국내 최초의 유품정리사이자  
장례지도사로 고독사 현장을  
마주하며 이를 막기 위한 예방  
교육과 강연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고독사 예방교육 앞장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

# “지인 죽음 겪으며 성공만 쫓던 삶 반성 고독사는 모두의 문제 이웃부터 살펴야”

지난 8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오랜만에 A씨의 집을 찾은 자녀가 시신을 발견했을 땐 이미 A씨가 사망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난 뒤였다. A씨와 자녀의 연락은 일 년에 한두 차례에 불과했다.

지난 6월에는 부산의 한 원룸형 빌라에서 2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 기간이 끝나 집주인이 찾아갔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의 친척을 통해 집주인이 강제로 문을 열어 발견했을 때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있었다.

죽어서도 외로운, 고독사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다 자살·병사 등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가족이나 친척, 이웃으로부터 빠르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난 뒤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는 일도 적지 않다.

안타깝게도 이런 쓸쓸한 죽음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이 약 152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 1인가구의 21.3%에 해당

한다. 이에 정부는 고독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내놴다.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고독사 실태파악을 실시해 위험군을 찾아내고 연령에 맞는 건강관리·취업·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선 고독사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석중(55)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매년 고독사 예방 교육을 할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내 최초 유품정리사이자 장례지도사로 2009년 고독사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했고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고독사 예방 교육과 강연을 이어오고 있다. 인터뷰 약속을 한 10월 22일에도 김 대표는 서울 중랑구 중랑구청에서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을 하고 오는 길이었다. “지금까지 저에게 고독사 예방 교육을 받은 분들만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고독사에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

“일본은 우리에게 비해 훨씬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가 머지않아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보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엄청난 나비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국내 최초의 유품정리사로 알려져 있다.

회사원을 거쳐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이었다. 2006년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성공을 위해 달리기만 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보람된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그때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천국으로의 이사를 도와드립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다. 일본의 유품정리 회사인 ‘키퍼스’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한국에는 유품정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없었다. ‘이런 일을 하는 회사도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누군가의 죽음을 끝까지 책임지는 회사의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았다. 2007년 일본으로 건너가 요시다 다이치 키퍼스 대표를 무작정 찾아가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3년간 일본을 오가며 연수를 마친 김 대표는 2010년 한국 최초의 유품정리 업체 ‘키퍼스코리아’를 세웠다. 그는 당시만 해도 생소한 유품정리사로 시작해 현재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장례행정복지과 외래교수, 부산시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일본은 고독사 문제가 우리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

일본에서 일을 배우면서 고독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다. 일본은 우리에게 비해 훨씬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실제 일본에서 경험한 유품정리 현장은 30% 이상 고독사였다.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가 머지않아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됐고 심각한 문제가 됐다.

고독사 예방 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고독사를 마주하면서 이러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러기 위해선 고독사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현실, 대책과 개선 방안 등을 알아야 한다. 전국을 다니며 일반 시민부터 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과 강연을 시작한 이유다.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은?

고독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이다. 사회적 고립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1인가구, 독거노인, 경제적 취약 계층,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고립 가구에서 나타날 수 있다. 사회 구조와 가족 형태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정신 건강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고립 상태가 지속되고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면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청년 고독사도 늘고 있다.

지금까지 고독사 문제는 노년층의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20~30대 고독사 사망자도 매년 늘고 있다. 청년 고독사의 경우 다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다. 20~30대는 취업 실패나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 2027년까지 고독사 20% 줄인다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약자복지 실현'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 지원

####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 고독사 예방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2023년 5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1.06명(2021년 기준)에서 0.85명으로 2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고독사를 막기 위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군 발굴부터 상담·조사, 서비스 연계·지원, 모니터링 등 고독사 예방·관리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는 것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이·통·반장 등 지역 주민이나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생명 지킴이)'로 양성하고 다세대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등 고독사 취약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낼 수 있게 발굴 모형을 만들고 위험 정도를 판단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는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찾아낸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사회 등과의 '연결'을 강화한다.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모임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 지원과 응급상황 감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도 활용한다.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취업 지원 및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식이다.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년 위험군의 경우 사회참여 유도과 더불어 평생교육·재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돌봄·정서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노인에게는 맞춤형돌봄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노인 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등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소를 마련하는 공영장례를 확대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된 장례주관자를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친구·이웃·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고독사 시신 발견·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주변인이 겪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계 실패 등으로 좌절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점점 고립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취약계층의 문제만도 아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라도 가족, 사회와 단절되고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다. 취약계층은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오히려 사회에 손을 내밀지도 않고 사회에서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들을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연령별·성별·지역별 등으로 고독사의 다양한 실태를 살펴야 한다. 이전 자료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독사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나?

고독사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 부패된 채

“고독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만 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살다보니 고독사라는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닐까.”

발견된 시신은 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임대인 등 최초 발견(신고)자들에게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트라우마라고 한다. 트라우마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로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경험을 말한다. 이런 트라우마는 현장에서 시신 수습 과정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영향을 미친다.

#### 물적 피해도 클 것 같다.

고독사는 흔적을 남긴다. 고독사가 발생한 집안에는 시신 썩을 때 발생하는 냄새가 났다. 집안의 벽지와 장판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 콘크리트에 스며든 혈흔도 쉽게 제거하기 힘들다. 시신이 부패하며 생긴 벌레가 옆집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세균이 번식하기도 한다. 모든 흔적을 지우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나이 들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과 임대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 고독사를 예방하려면?

고독사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되는 사례가 줄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역 공동체가 필요하다. 화재 사고를 생각해보자. 불이 나면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 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집이나 사무실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지역에선 의용 소방대가 조직돼 활동한다. 고독사도 이렇게 곳곳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인

식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 고독사를 막기 위한 안전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우리는 보건실로 달려간다. 보건교사는 상처를 보고 보건실에서 치료를 할지, 병원으로 가야 할지 알려준다. 누구나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간단한 상처는 곧바로 치료해주며 더 큰 상처는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보건실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적·심리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강연 때마다 ‘고독사 유가족이 되지 말라’고 힘줘 말한다. 고독사 사망자 최초 발견자 중에는 가족이 많다. 이로 인해 죄책감을 갖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자주 연락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임대인에게는 월세만 받을 게 아니라 세입자 관리도 열심히 하라고 한다. 주변 이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독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만 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살다보니 고독사라는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강연을 마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다. “나부터! 지금부터! 가까운 곳부터!” 지금부터라도 나와 주위를 돌아본다면 쓸쓸한 죽음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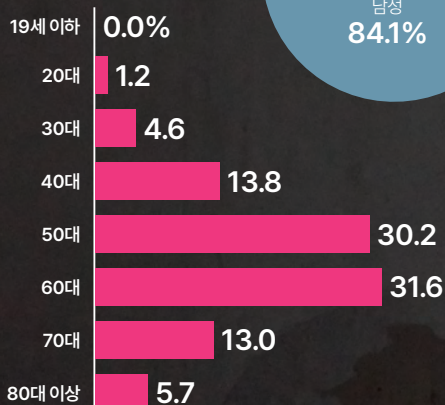
강정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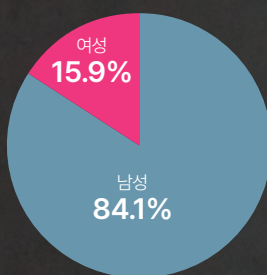
##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

**고독사**  
**3600여 명**  
**2명 중 1명은**  
**5060남성**

연령대별 비중



성별 비중



자료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에서 ‘고독사’하는 사망자 수가 한 해 36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최근 2년간(2022~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2년 첫 조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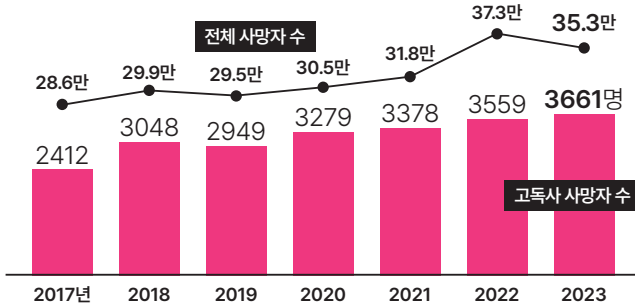
지난해 고독사한 사망자는 3661명이었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1인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1인가구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16만 6000명, 2022년 750만 2000명, 2023년 782만 900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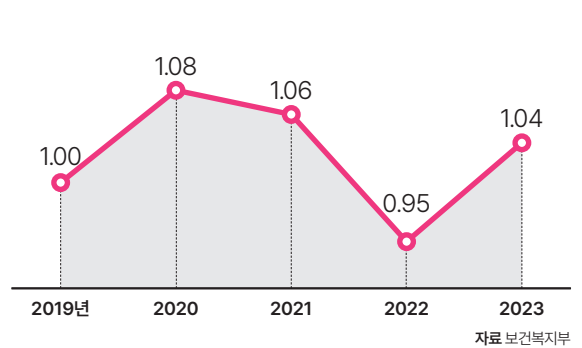
정부가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22년까지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2023년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바뀌었고 올해 6월부터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는 치매 부모와 함께 살던 50대 미혼 자녀가 자택에서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도 고독사로 분류된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0년 1.0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1년 1.06명에서 2023년 1.04명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독사 사망자 수 추이 단위:명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단위:명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를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착수, 2023년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들의 누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독사 사망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다섯 배 이상 많았다. 2023년 성별 미상자 29명을 제외한 고독사 사망자 3632명 중 남성은 84.1%(3053명), 여성은 15.9%(579명)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1097명, 40대 502명, 70대 470명 순이다. 이 가운데 50~60대 남성이 53.9%를 차지해 고독사 위험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5.3%에서 2021년 52.1%, 지난해 53.9%로 상승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516명)다. 2021년 17.3%(571명)보다 다소 줄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의 비중이 높았다. 20대가 59.5%로 가장 높았고 30대 43.4%, 40대 25.7%였다. 50대(14.1%)와 60대(8.3%)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3년 41.4%(1413명)로 나타났다.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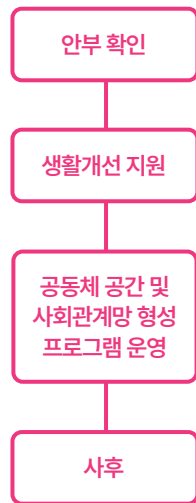


2023년 12월 울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지역 주민의 안부를 살피는 모습. 사진: 뉴시스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확대

**‘쓸쓸한 죽음’ 없도록  
안부 확인,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39개 시·군·구에서만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하면서다.

복지부는 1인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가구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 확인, 유품정리와 특수청소,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7월부터 이 사업에 들어간 190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1인가구, 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46억 6000만 원 규모로 국비 50%, 광역 30%, 기초 20%로 구성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 권고안은 식사·음주·타인과 소통 빈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일정한 소득 유무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지자체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새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사한 10명 중 4명은 저소득층인 셈이다. 고독사로 사망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9년 901명에서 2021년 1300명, 2022년 1301명, 지난해 14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취약 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고독사가 경제적 취약 가구에 한정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922명), 서울(559명), 부산(287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합계에서도 경기 3712명, 서울 2953명, 부산 1502명, 경남 1160명, 인천 1109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주택이 48.1%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21.8%, 원룸·오피스텔 20.7%, 고

시원 3.9%, 여관·모텔 3.7%, 기타 1.8%였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임대인·건물관리자·경비원·택배기사 등이 34.5%로 가장 많았다.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 등 가족이 26.2%, 이웃 주민 19.3%, 지인 10.3%,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7%, 미상 2.7% 등으로 집계됐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정미 기자

## “원전 생태계 정상화 ‘원전 르네상스’ 맞아 원전 산업 수출길 활짝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사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금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앞다퉀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온 일등공신”이라며 “이제 대한



# 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0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신한울 3·4호기 착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



“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온 일등공신이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 이제 팀코리아가 유럽의 심장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국은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했다. 이어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지만 이제 팀코리아가 유럽의 심장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직접 체코를 방문해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한·체코 원전동맹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내년 상반기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원전업계에 일감이 넘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8조 7000억 원의 원전 일감이 발주됐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등 많은 일감이 발주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원전 일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고 원전 관련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전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

계 프로그램까지 단계별 인력 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에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건설이 중단됐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 버팀목… 내년 지원 예산 역대 최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소상공인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금융·공과금 부담을 경감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소상공인에게서 나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소상공인 대회에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참석했고 올해까지 2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며 “하루빨리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은행이 협업체 내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두 배로 대폭 늘린 10조 원을 공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 90만 명에게 전기요금 20만 원을 이미 지원한 것에 더해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에 68만 명에게 2000억 원 규모로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개최식에서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올해 역대 최고치인 4조 2000억 원어치 판매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 및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를 참관했다. 또한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탄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탄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원전 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사전 각종 인허가와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마치고 이날 착공식을 열었다.

###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

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러·북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 대통령실 견학 온 공사생도

### 윤 대통령 예고 없는 깜짝 격려 “여러분 보니 든든”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 견학 온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깜짝 격려’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을 앞둔 187명의 4학년 생도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둘러보고 강연을 듣는 안보견학을 했다. 생도들의 견학 소식을 전해들은 윤 대통령은 생도들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방문에 생도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는 줄 미리 알았으면 내가 직접 점심도 대접하고 대통령실을 소개하며 함께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보니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도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고 대통령실 청사 건물 앞에서 공군사관학교의 ‘독수리 구호’를 함께 외치며 4학년 생도 전원과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깜짝 격려는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예우 등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 견학 온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을 만나 ‘독수리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며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의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가 정부 대표단을 키이우에 파견하기로 한 데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며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이고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한의 군사무기 이전과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안보·인도·재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우방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강정미 기자



# ‘소(牛)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전국 온·오프라인 1948개 매장 참여

올해 하반기에도 한우 ‘바겐세일’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이며 할인율은 최대 50%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매장 1948개가 참여한다.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를 시작한다. 농협 라이블리, 농협몰 등 농협계열 온라인몰은 이에 앞서 10월 26일부터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다. 농협 라이블리, 농협몰 등 농협계열 온라인몰과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7460원, 양지는 3550원, 불고기·국거리는 2670원 이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최소 20~30%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이다. 전국한우협회는 2008년 최고, 제일, 으뜸을 뜻하는 숫자 1이 세 번 겹친 날 중 11월 1일을 한우 먹는 날로 공식 선포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008년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 17번째를 맞이하는 한우 먹는 날은 생산자단체가 한우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날”이라며 “한우 농가를 돕는 차원으로 ‘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기간 동안 맛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한우를 많이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www.hanwooboard.or.kr](http://www.hanwooboard.or.kr))과 전국한우협회([www.ihanwoo.org](http://www.ihanwoo.org)), 농협경제지주([www.nhabgroup.com](http://www.nhabgroup.co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우 등급·부위별 할인판매 가격 (단위: 원/100g)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
1+	8540 이하	3670 이하	2730 이하
1	7460 이하	3550 이하	2670 이하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의 온·오프라인 매장 1948곳에서 한우를 최대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사진 뉴스시스

## 유보통합포털에서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 한번에

2025년부터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11월 1일 개통한 ‘유보통합포털’을 통해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

로’ 사이트에서 해야 했다.

유보통합포털에 로그인하면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은 물론 유치원입학시스템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게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입소·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 웹 사용설명서,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부모 전화 상담센터(유치원 1544-0079-9-1, 2, 어린이집 1566-3232-1)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유보통합포털’에서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다. 사진 뉴스스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생아 가구 최우선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 구성원수별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침수위험지역 하수도 정비에 8300억 투입 기습 폭우 대비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10월 29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 연제구 연산동, 경기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할 방침이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 도입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집중강우 때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정부가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을 위한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이다.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용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대상 포함 교육환경 개선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10월 29일 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세부 지원근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돼 이들 시설에 대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졸업식 모습. 사진 뉴스스

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학평의 경우 50%만 감면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재정지원 강화 조치로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면 교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져 교육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유류세 환원 따른 가격 인상 자제! 정부, 업계에 요청

유류세 환원에 따른 휘발유 등의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조치사항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월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2원, 경유는 리터당 약 41

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4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한 업계·기관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산업부는 “현재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상황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석유·가스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기관·업계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휘발유 등의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에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사진은 10월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사진 뉴시스



## 농민 128만 명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억 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ha)에게 지급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77만 명으로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

만 원으로 높아지며 지급액은 지난해 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ha 이하의 농가에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왔다. [K]

박지현 기자

## 어! 사진과 다르네

캠핑족 올리는  
캠핑장 ‘사진발’  
예약 플랫폼이  
직접 관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번에 시정한 조항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다.

입점업체에 사진·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공정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화 부담금법 22년 만에 전면 개정

정부가 부담금법을 전면 개정한다.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간다. 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0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

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둔다.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욱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 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마련했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친다면 행정쟁송 이전에도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증가산금 요율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향후 시행령 개정 때 증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일 0.025%에서 0.022%로 낮아진다.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부담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이번 부담금법 전면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진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사진 뉴시스

박지현 기자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요양시설 이용료는 평균 3.93% 인상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4년과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24년과 동일한 12.95%를 적용하게 됐다. 그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37%, 2020년 24.38% 등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1년 15.59%, 2022년 8.53%, 2023년 5.89%, 올해 1.09%로 오름세가 주춤했다. 복지부는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약 4조 원으로 작년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내년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2024년 대비 평균 3.93% 오른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 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한 이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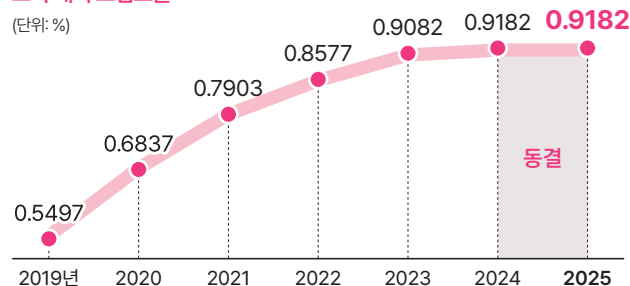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월 21일  
서울 은평구 소재  
치매안심병원을 방문해  
치매 관련 의료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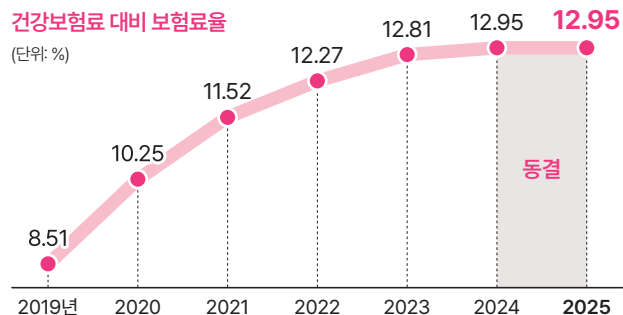
### 소득 대비 보험료율

(단위: %)



###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4년과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신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2024년 대비 평균 3.93% 오른다.”

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23만 650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올해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에 추진되는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다양화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한도액을 인상한다. 1등급의 경우 기존 206만 9900원에서 230만 6400원, 2등급의 경우 기존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오른다.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한다.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는 기존 10일에서 11일로, 중일방문요양은 기존 20회에서 22회로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늘렸다.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 환경 조성 등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장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적정 수준의 급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 지원금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이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은 2024년 36개에서 2025년 54개 운영을 목표로 확대한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

서경리 기자

# 중도해지율은 낮고 가입유지율은 높고 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 명 돌파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개인소득(연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 250% 이하) 기준 충족자 * 개인소득 6000만~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부여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식
가입기간	5년
정부지원금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월 2만 1000~2만 4000원)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부가서비스	은행별 부가서비스 제공(비교 공시페이지 참조)
기타	1인 1계좌
가입 및 해지 절차	은행 banking 애플리케이션 및 지점에서 가입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지점 방문 시)해 은행에서 적립금액 및 정부지원금 수령
각 은행별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 NH농협은행 1661-3000, KB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iM뱅크(옛 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우리은행 1588-5000, BNK부산은행 1588-6200, SC제일은행 1588-1599, 광주은행 1600-4000, 하나은행 1599-1111, 전북은행 1588-4477, IBK기업은행 1566-2566, BNK경남은행 1600-8585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0월 30일 기준 1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6만 4000명이 신규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는 9월 신규 가입자 2만 1000명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약 600만 명으로 추정하면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2023년 6월에 출시됐는데 15개월이 경과한 올해 9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이 88%로 확인됐다. 계좌 개설자 146만 명 중 128만 명이 납입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이 평균 45%고 2024년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 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이 77%인 점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른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중도해지율은 평균 55%, 청년희망적금은 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불과하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계좌를 꾸준히 유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청년들의 자산 축적 위한 다양한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나가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출시된 상품인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오랜 기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원 중 하나는 적금담보부대출이다. 청년층은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교육, 주거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2023년 6월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 뉴시스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할 예정이다.”

이 큰 만큼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적금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네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의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KCB 기준)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현재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향후 월 최대 3만 3000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여금은 매월 지급되고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기대수익이 늘어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여금 지원 확대 적용 시기는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며 연내 안내·발표할 예정이다. 또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올 4분기 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가입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영업일만 운영)다. 협약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iM뱅크(옛 대구은행)이며 세부 가입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

임연영 기자



'푸른씨앗'이 출범 2년을 맞아  
더 큰 혜택을 제공해요.  
사업자에게만 주던 재정 지원을  
올해부터 근로자로 확대해 퇴직급여를  
더 많이 적립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근로자엔 4~7% 수익률 사업주엔 재정 지원·수수료 면제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 준비죠?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의 중요한 수단인데요. 통계청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100인 이상 사업장보다 무려 65%포인트가 낮았어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선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내야 하는 부담이 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정부가 2022년 9월 도입한 것이 '푸른씨앗'이에요. 이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한데 모은 뒤 전문투자


운용사에 이를 운용하게 함으로써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였어요.

푸른씨앗의 가장 큰 혜택은 재정지원인데요.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130%, 즉 월급여 268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위해 내는 부담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인당 최대 26만 8000원을 회사당 30명까지 3년간 지원해줘요. 특히 이전까지 사업주에게만 주어지던 이 혜택이 올해부터 근로자에게도 지원돼요. 즉 월급여 268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업주는 운영 수수료 전액을 면제(2023년 4월부터 5년간)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전문자산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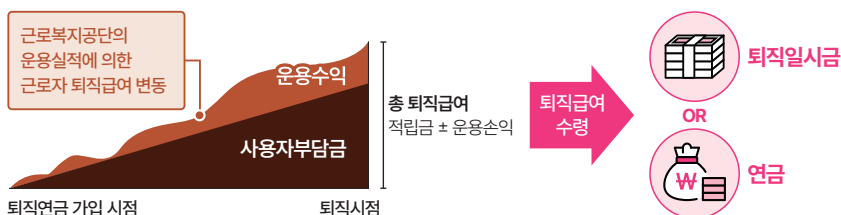
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예요. 푸른씨앗은 지난해 7%의 수익률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 목표수익률인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5·10년 연환산 수익률이 2%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죠. 아울러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 적립되기 때문에 수급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면 장기근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좋은 일이겠죠?

푸른씨앗은 그간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절차도 개선했어요.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한 데다 복잡한 절차를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했어요. 이 같은 이유로 출범 2주년을 맞은 푸른씨앗은 가입 사업장이 1만 9432곳, 가입 근로자가 9만 2183명을 넘어섰어요.

사용자와 근로자는 누리집(pension.comwel.or.kr)을 통해 푸른씨앗 가입과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입 절차와 지원요건 충족 여부, 서류제출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61-0075)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조은 기자

### '푸른씨앗' 운용 과정



자료 근로복지공단

## 아파트(APT.)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부른 '아파트(AP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8위에 올랐다. K-팝 여성 가수가 빌보드 핫100 톱10에 진입한 건 처음이며 역대 K-팝 아티스트 중에선 다섯 번째다.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첫 음방에서 1위를 해서 아침 내내 울었어요. 1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로지 너무 고맙고 ‘아파트’ 많이 사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ove, Bruno 오빠.”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어로 된 게시물이 올라와 깜짝 눈길을 끌었다. 그야말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블랙핑크 로제와 함께 부른 ‘아파트’의 인기에 대한 감사의 인사다.

10월 18일 처음 공개된 ‘아파트’가 국내외 음원차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2월 6일 발매하는 로제의 첫 번째 정규 앨범 ‘rosie’의 선 공개곡인 ‘아파트’는 술 마시기 게임인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해 로제가 직접 작사·작곡했다. 단순한 가사와 멜로디로 만들어진 짧은 곡인데 중독성 강한 가사와 흥겨운 분위기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라는 후렴 부분의 중독성이 강해 ‘수능 금지곡’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수능 금지곡은 한 번 들으

면 잊히지 않아서 집중을 요하는 시험 등을 볼 때 문제가 생기는 노래를 일컫는 네티즌 용어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유튜브 공개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고 10월 30일 오전 현재 1억 8000만 회 넘는 조회 수를 올리고 있다. 영상의 파급 효과도 크다. 브루노 마스가 뮤직비디오에서 양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가사에 맞춰 “건배, 건배”를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누리소통망(SNS)에 아파트 게임을 설명하거나 따라 하는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 유튜브들도 ‘아파트’ 영상을 따라 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69게임’에서 유래한 구호의 빠른 리듬감과 ‘아파트’의 격음이 만들어내는 흥겨운 분위기는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했다. 세계적인 음원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의 글로벌 차트를 정복한 것.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부문에서는 4위로 처음 등장했는데 이는 국내 여성 솔로 가수 중 최고 기록이다. 블랙핑크가 지금까지 거둔 성적보다 높은 순위다.

미국 음악 전문매체 빌보드가 10월 29일 공개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가 빌보드 핫100 최신차트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로제가 발매한 솔로곡 중 가장 높은 순위이자 생애 첫 핫100 톱10 진입이다. 블랙핑크 타 멤버의 솔로곡과 단체곡을 통틀어 자체 최고 순위기도 하다. 앞서 빌보드에서 블랙핑크 단체곡 최고 기록은 ‘Pink Venom(22위)’이, 솔로곡 최고 기록은 로제의 ‘On The Ground(70위)’와 리사의 ‘ROCKSTAR(70위)’가 보유하고 있었다. 로제는 “내 꿈이 현실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K-팝의 새로운 역사가 실시간으로 새롭게 쓰이는 중이다. **K**

임연영 기자

## 태극기 들고 아~파트, 아파트~ 전 세계가 ‘K-팝’ 떴창 중



로제와 브루노마스.  
사진 더블랙레이블

# 유산·사산 휴가 ‘5일→10일’로 일·가정 양립 중기에 세무조사 유예

앞으로 임신 초기에 유산·사산하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술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0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는 10월 10일 임신부의 날 논의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앞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점점 보완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다섯 가지 지원과 제가 우선 추진된다. ▲유산·사산 휴가 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등이다.

## 난자 채취 실패해도 시술횟수 차감 안해

먼저 유산·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현재 11주 이내 임신 초기에 유산·사산하는 경우 5일의 휴가를 주지만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도입한다. 배우자는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임신부의 이동편의 증진 차원에서 광역버스 내 임신부 배려석(교통약자 지정석)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출퇴근 등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 간 장거리를 광역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임신부의 경우 어려움이 큰 만큼 임신부 배려석을 탑승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유색시트로 좌석이 한눈에 잘 보이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신부가 주차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은 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도 공표한다. 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산후조리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4 서울 하이베이비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임신·출산 가구 지원 추진 방안

-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 5일 → 10일로 확대
- 배우자 유·사산 시 유급 휴가(3일) 신설, 중소기업은 정부가 급여 지원 예정
- 광역버스 내 임신부·교통약자용 유색 좌석시트 설치
- 영유아 동반 가족·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 산후조리원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 의무화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시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 활용 지원
-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지원 정책 정보 제공
- 2024년 11월부터 난자채취 실패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 지자체 지원금 반환 없이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추진 방안

-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단기 육아휴직 '연 1회 2주 단위 사용'  
→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
- 민간기업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한다. 저고위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도 더 커진다. 대표적으로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이 같은 이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되면 건강보험급여 지원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도록 개선한 내용을 지자체 지원 분야로 넓힌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1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그간 정부 정책이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신청 기준 및 방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것과 관련,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정책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자동으로 관련 정책을 안내·추천하는 통합정보제공서비스 ‘해택알리미’는 현재 구축 중이다. 2025년 1분기부터 이를 활용해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향후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저고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등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가족친화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곳 가운데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인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관해 의견을 모은 결과 기존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향후 제도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는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 중인데 앞으로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11월 중),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사업보고서 공시(DART)를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차질 없이 이행

이번 회의를 통해 10월 말까지의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과제를 점검한 결과 총 151개 중 141개가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위는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가 조치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

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양육·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 지원의 경우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가 추가로 보완·발굴한 과제 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금 납부유예 인정사유에 ‘출산한 경우’ 추가(10월 1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0.2%포인트) 지원 신설(10월 23일부터) ▲대학(원)생이 ‘육아휴학’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범위 전체 초·중·고등학교 기간으로 확대 등이다.

저고위는 이 같은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신속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출산과 혼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인 것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

조윤 기자

# 신중하게 QR코드 체크!



## CHECK 1

### 아무 QR코드나 찍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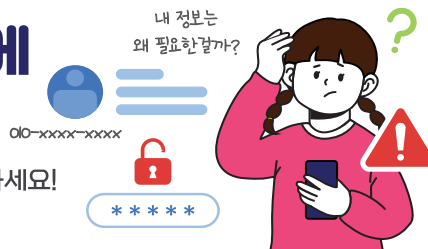
덧붙여진 가짜 QR코드인지 살펴보고,  
인터넷주소가 올바른지 다시한번 확인!



## CHECK 2

### QR코드로 연결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입력하지 않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요!



## CHECK 3

### QR코드 접속 시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기!

스마트폰은 좀비폰이 되고,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갈거예요!



## · 큐심(QR코드 피싱) 확인방법 ·





##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했다!

탄핵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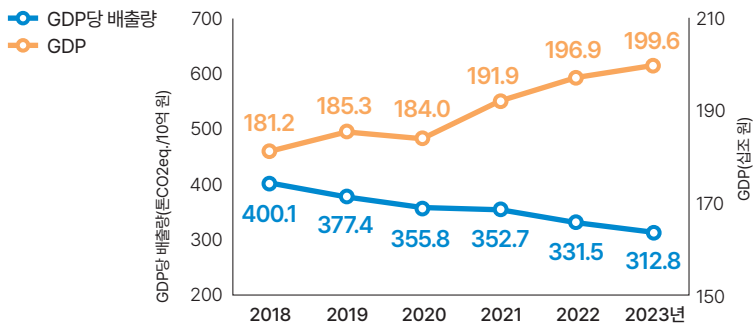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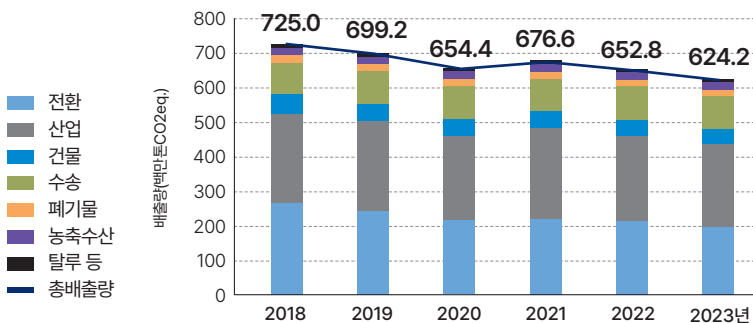
2023년 총배출량 6억 2420만 톤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

2023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연속 감축된 수치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성과다. 2022년 대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핵위)는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핵위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및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다.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MRV 역량 제고 방안'은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MRV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국내총생산(GDP)당 배출량 추이



자료 환경부

###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2023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 추세에 있다.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환경단체가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며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잠궈야 하다'는 의미가 담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는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했다. 이행점검단의 인원은 90명으로 탄녹위 민간위원 15명, 전문위원 63명, 미래세대·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대부분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가 지속되고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 또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해 산업 부문의 체질이 저탄소 구조로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탄소 발전 확대, 송

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국가 차원에서 당면한 과제와 향후 조치할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 8월 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면밀하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탄녹위는 이번 이행점검으로 파악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조치계획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 뉴시스

“2023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대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

#### ▲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당사국은 ‘격년투명성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올해 최초로 제출하는 국가로 전 세계의 관심이 높다.

주요 내용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다. 격년투명성보고서에는 2023년에 기준연도(2018년) 대비 13.9% 감축 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담았다. 이는 다배출 무역 집약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배출국과 유사한 감축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요인이다. 그 외에도 웹 기반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 등을 활용한 기후적응 강화대책을 설명하고 재해 취약주택 지원(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형 벼품질 개발(충남도) 등 기후재난 대응 사례를 제시했다. 글로벌 기후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부문도 포함됐다.

또 2022년 약 21억 5600만 달러(약 2조 8600억 원, 약정액 기준)의 기후 양자 재정지원을 설명하고 기술개발·이전 지원실적과 에너지·농업·산림·물과 위생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 사례 등을 소개했다. 자구 정리 및 번역 등을 거쳐 격년투명성보고서가 12월 말 유엔에 제출되면 내년 유엔 기술검토팀이 방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팀을 구성해 유엔의 검증 과정을 지원·대응할 계획이다. 제출된 영문보고서는 유엔의 기후변화 소관 기구인 기후변화협약(UNFCCC) 누리집에, 국문 보고서는 우리나라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된다.

#### ▲기업의 탄소 MRV 역량 제고 방안

국제사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청정경쟁법(CCA, 미국) 등 탄소규제 도입을 통해 해당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 MRV 준비 등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 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제품 및 서비스의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개편, 기후공시 등에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규제 대응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정부는 탄노위와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를 갖추고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K** 임언영 기자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10곳 추가

## 행위별 수가제 ?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 EMR(전자의무기록)

의료 기록 업무를 전산  
처리하는 것.

## 병원통합평가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료 질 평가  
통합 플랫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 10곳이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로 높여야 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하고 전공의 비중을 줄여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선정된 기관이 안정적으로 구조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협력해 경증환자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보상도 주어진다.

2차 참여기관에 선정된 병원은 강남세브란스 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가나다순)이다. 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건강 개선과 의료의 질 제고라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8개 기관 외에도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합리적인 보상제도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10월 30일 개최된 제10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보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병원통합평가포털 같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기피하는 지역과 진료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지원하도록 유인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필요조건”이라며 “병원 간 진료협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제도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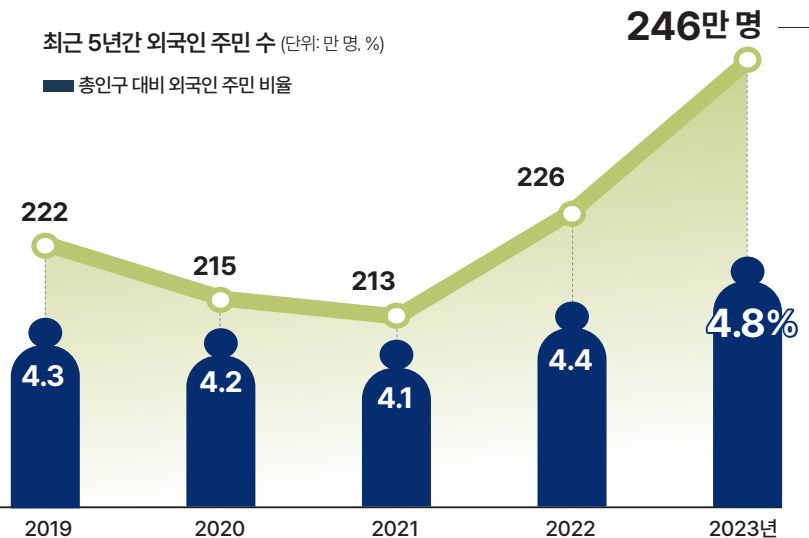
김효정 기자

## 옆집 사는 외국인 국적은 어디?

국내 거주 외국인 246만 명,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주민 수 (단위: 만 명, %)

■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청

우리나라에서 세 달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24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년도 226만 명보다 20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국적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인구) 5177만 4521명의 4.8%에 해당하는 숫자다. 대구광역시 인구 수(237만 9188명)를 뛰어넘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크게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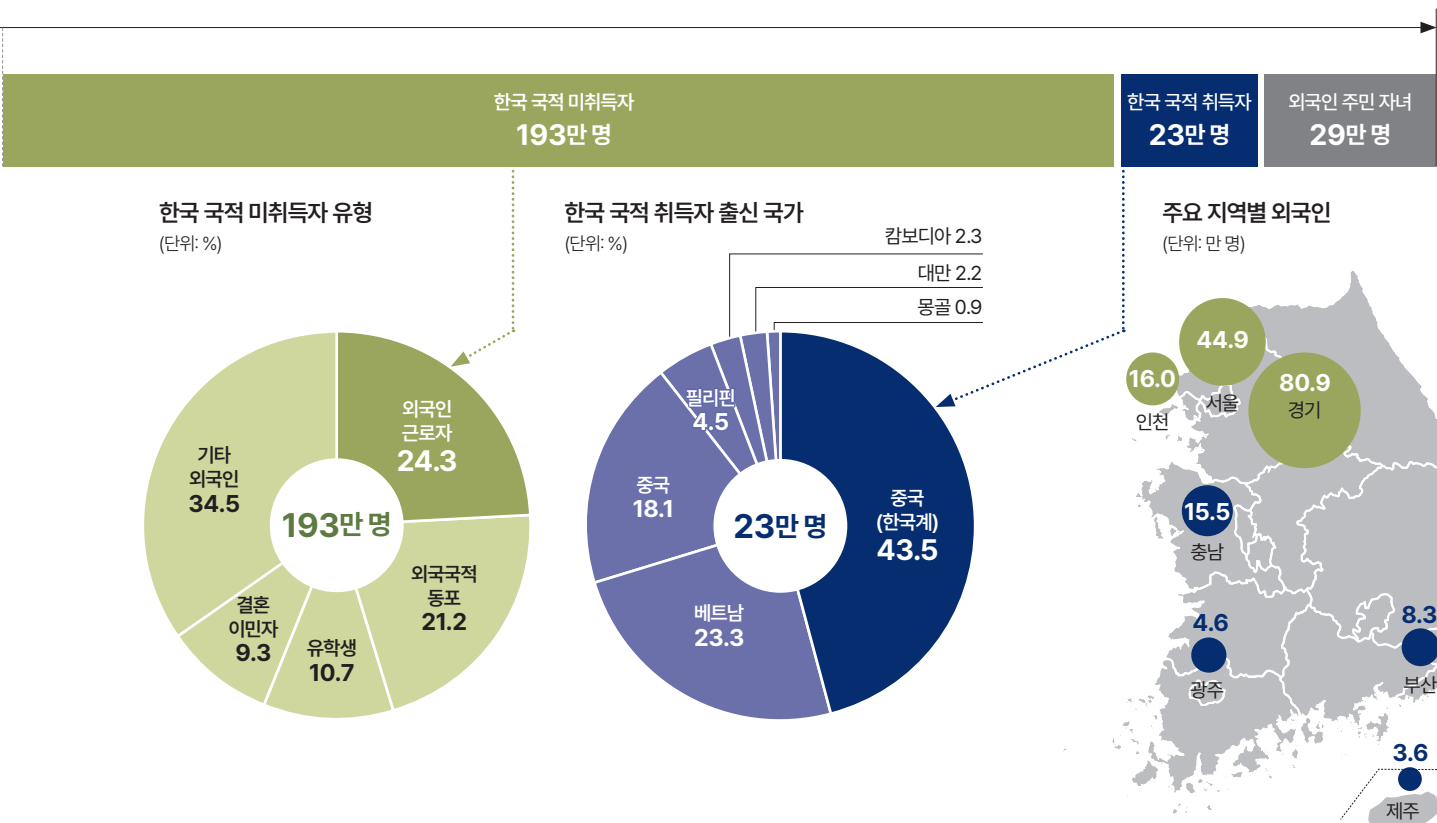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세 달 이상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 9542명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53만 6627명보다 네 배 이상 많은 숫자다.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 경북(258만 9880명)과 7위 대구(237만 9188명) 사이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수는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 대다수인 193만 5150명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은 23만 4506명으로 전체의 9.5%에 그쳤다. 이 중에는 중국 동포 출신(43.5%)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출신(23.3%)이 다음이었다. 한편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 자녀 숫자도 꾸준히 증가해 28만 9886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통계와 대비해 두드러지는 특징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증가 추세다. 각각 6만 7111명(16.6% 증가), 1만 6932명(8.9% 증가)이 늘었다. 행안부는 “두 유형의 외국인 주민 증가가 전체적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단체(시·도)는 경기도가 80만 9801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44만 9014명)과 인천(16만



859명)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고 충남(15만 5589명), 경남(15만 643명)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 주민의 57.8%(141만 9674명)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기초단체(시·군·구) 역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안산(10만 8033명), 화성(7만 6711명), 시흥(7만 4653명), 수원(7만 1392명), 부천(5만 8632명) 순이다.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한 시·군·구는 217곳이며 감소한 곳은 단 11곳에 불과했다.

증가율로 봐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수가 지난해보다 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18.5%), 경남(17%), 울산(15.6%) 등의 순으로 비수도권의 중

가 폭이 컸다. 인원으로 보면 경기(5만 8294명), 경남(2만 1942명), 충남(1만 9583명) 순으로 늘었다.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보다 30곳 늘어난 127곳이다. 이 중 28곳은 비수도권이다.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이란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이거나 총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를 뜻한다. 영암(18.6%), 음성(18.1%), 안산(15.2%), 포천(14.1%), 진천(13.9%) 등이 해당 지역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외국인 주민은 대한민국 총인구의 4.8%로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 만큼 어려움 없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윤 기자



한국인 최초 伊 오페라 페스티벌 연출 안주는

## 이탈리아 관객 기립박수 이끌어낸 비결? “뮤지컬보다 재밌는 오페라 기대하세요!”

지난 8월 3일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페스티벌인 ‘마스카니 페스티벌(Mascagni Festival)’ 현장. 영화 ‘대부’의 OST에 맞춰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무대 위에 등장한 한국인 무용수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빠른 템포의 서양음악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동양의 춤선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앞서 7월 27일 ‘산 지미냐노 국제 페스티벌’에서도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두 페스티벌은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올해 특히 화제를 모았다. 오페라의 본고장에서 한국인이 페스티벌의 총연출을 맡았기 때문이다. 한국인 최초다. 현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오페라 연출가 안주는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두 페스티벌은 특별하게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진행됐다. 행사의 연장선으로 지난 9월 20일에는 ‘세계가 하나 되는 올림’을 주제로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이 펼쳐졌다. 마스카니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이자 지휘자인 마리오 메니칼리와 연출자인 마르코 볼레리, 알베르토 프로페타를 초청해 무대를 꾸몄다. 국내 출연진으로는 세계 4대 오페라 음악 총감독 겸 베하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예술 총감독인 지휘자 김봉미를 비롯해 박성희, 조현애, 이동명, 임희성 등 정상급 성악가와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180여 명의 아티스트

(왼쪽) 이탈리아에서 열린 마스카니 페스티벌의 커튼콜에서 안주는 연출가(왼쪽에서 세 번째)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이탈리아 산 지미냐노 국제 페스티벌 갈라콘서트 장면.  
사진 안주는





안주는 연출가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하며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가 참여했다. 안 연출가는 “민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특별한 공연이었다”며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스페인, 영국과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교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연출가는 이탈리아 아레나 아카데미 최고 연주자 과정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체코 브르노 국립음악원에서 뮤

지컬을, 미국 해필드 대학교에서 무대연출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국내외에서 오페라 ‘마술피리’, ‘투란도트’, ‘박쥐’, ‘라트라비아타’, ‘아이다’, ‘카르멘’,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400여 작품의 연출을 맡았다. 2008년 모스크바 국제 연출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연출가로서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은 그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11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9월 20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세계가 하나되는 올림'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 안준은

오페라극장에 연출가가 아닌 배우로 무대에 오른다. 어린 시절 품었던 성악의 꿈을 놓지 않고 틈틈이 레슨을 받아왔는데 노력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 해가는 안 연출가를 만났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페라의 성지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대표 페스티벌에 한국인 최초로 총연출을 맡으며 지난여름을 뜨겁게 보냈다.

이탈리아는 오페라와 클래식 of 뿌리를 가진 도시다. 한국인 연출가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국립무용단 무용수인 박기환을 초청했다. 한국의 미·의상·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오케스트라에도 한국무용이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시도였다고 본다.

반응은 어땠나?

4분 30초 안에 한국무용으로 오페라 한 편을 펼쳐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한국무용은 처음인데다 빠른 템포의 음악에 느낌의 미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 모두 놀라워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한국무용이 서양악기와 어우러지며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이번 공연의 성과라고 본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인인 안 연출가를 총연출 자리에 세울

때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높이 산 것 같다. 연출을 처음 배울 때부터 스승에게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는 연출가는 죽은 연출가나 다름없다'는 말을 들었다. 연출가가 가수들 앞에서 광대가 될 때 가수들이 관객들 앞에서 광대가 될 수 있다. 연습할 때도 자리에 앉은 적이 없다. 내가 먼저 보여주고 따라오도록 돕는다. 가수가 진정성 있게 연기하고 노래할 때 관객도 즐거움을 느낀다. 오페라는 그래야 한다. 그 믿음 하나로 지금의 자리에 있다.

대학에서 성악을 배워 크로스오버 가수로도 활동했다. 성악을 하다가 연출로 전향한 계기가 있나?

나는 끼와 열정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도 좌절의 시기가 있었다. 러시아에서 공부하던 중 결핵과 폐렴에 걸려 코마 상태로 2개월 정도 지냈다. 그때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다신 노래를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로에서 무대 연출을 배웠다. 6개월 동안 소극장의 조연출로 일하며 새로운 매력을 느꼈다. 무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연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에 있는 오페라극장에 취직해 정식으로 연출가의 길을 걸었다.

안 연출가는 파격적인 오페라 무대를 연출해왔다. 부산에서 공연했던 오페라 '박쥐'는 클럽버전의 일렉트로닉한 무대로 풀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페라도 어렵지 않고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도를 많이 했다. 뮤지컬보다 재밌는 오페라로 문턱 높은 오페라 공연의 선입견을 깨고 싶었다. 클럽DJ의 라이브 공연과 폴 댄서, LED조명 등 기존 오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볼거리로 무장했다. 관객들은 너무 좋아했지만 음악계에서는 싸늘한 반응이었다. 2~3년 동안 나를 찾지 않더라. 그동안 갈고닦으며 실력을 쌓았다.



“이탈리아는 오페라와 클래식의 뿌리를 가진 도시다.  
한국인 연출가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국립무용단 무용수인 박기환을 초청했다.  
한국의 미·의상·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오케스트라에도 한국무용이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시도였다고 본다.”

그동안 연출해온 작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을 하나 꼽는다면?

가장 ‘안주은답게’ 연출한 작품은 ‘투란도트’다. 음악에 드라마를 입혀 뮤지컬처럼 선보인 작품이다.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가 ‘칼라프’ 왕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 단순한 드라마를 여주인공의 결핍에 초점을 맞춰 드라마로 풀어냈다. 원작이 갖고 있는 비극적 요소와 로맨틱한 해피엔딩을 최대한 섬세하게 결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관객들이 푸치니의 음악을 극적 요소들과 함께 좀 더 편안하게 감상하는 무대가 되길 바랐다. 성악가들 역시 극에 몰입해 ‘오페라 가수’가 아닌 ‘오페라 배우’가 돼줬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무대였다고 자평한다.

오페라 연출가로 누구보다 우리나라 오페라의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페라 ‘마술피리’를 각색해 무대에 올린 적이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캐릭터를 앞세워 50분 동안 한국어로 공연했다. 오페라 가수는 물론 뮤지컬 배우를 동원해 연기적인 부분을 채웠다. 오페라의 형식과 본질은 지키면서 연출과 안무, 연기 등의 양념을 넣어 이질감 없이 만들었다. 관객들도 좋아했다. 나의 모토는 ‘내 아이가 처음 보는 오페라는 즐거워야 한다’다. 아이들이 흥얼거릴 수 있는 오페라를 시도해보고 싶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오페라가 더는 어렵지 않은 친숙한 장르가 될 것으로 본다.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까지 클래식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오페라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문화가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클래식 음악을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크고 작은 음악 공연이나 오페라를 자주 관람하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분위기가 정착됐다. 한국에서도 우리들과 밀접한 소재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가 지속적으로 생겨난다면 충분히 대중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소극장에서는 많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해 질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문화를 깨기 위해서는 후원과 기부 문화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또한 시대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은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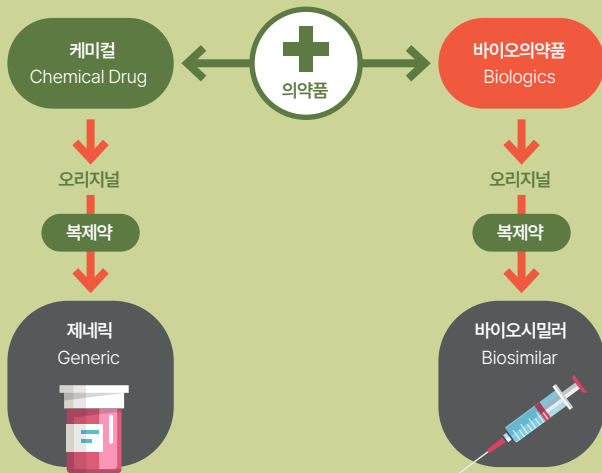
11월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는 오페라극장에서 배우로 무대에 오른다. 오페라 연출을 하던 중에 성악 레슨을 받았는데 시칠리아 극장장이 내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더니 ‘소리가 좋은 데 왜 노래를 안 하나. 지금 나이가 가장 꽃 필 나이’라고 말하며 무대에 서보라고 권했다. 새로운 도전이 너무 즐겁다. 앞으로의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된다.

안주는 연출가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싶나?

안주은은 ‘열정적이다’라는 말이 듣고 싶다. 늘 새로운 시도를 하며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고 싶다. 나는 일을 할 때 거침이 없다. 실력으로 보여주면 된다. 앞으로도 ‘안주은 다운’ 공연을 펼쳐가고 싶다. **K**

서경리 기자

# 복제약 시장 지각변동 바이오시밀러 vs 제네릭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의 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약에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이 있다. 그렇다고 복제약이 가짜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두 종류로 크게 나뉜다. 두 의약품의 기술을 활용한 것이 복제약이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어떤 차이가 있고 시장 전망은 어떨까?

## 복제약,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된 이후 개발 가능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그대로 만들어낸 의약품을 말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정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가장 처음 개발된 신약이다.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거치고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시장에 출시된다.

신약은 효과가 좋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은 보통 개발 기간만 10년 정도 걸리고 성공률도 낮은 편이다. 그래서 신약이 나오면 특허권을 10~15년간 보호해준다. 특허가 만료된 후에는 개발사가 더 이상 독점판매권을 보유할 수 없게 되고 개발사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복제약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저렴한 약값이다. 이미 공개된 약에 대한 분석을 거쳐 만드는 약인 만큼 개발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이 때문에 복제약은 대개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선이고 상한선은 53.55%를 넘지 않는다. 이는 환자들에게 큰 혜택일 수 있다.

복제약은 ‘제네릭(generic)’과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로 구분된다. 모두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갖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제네릭은 ‘합성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합성의약품의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 동일하게 만든 의약품이다. 따라서 합성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효능·효과, 복용 방법 등이 같다. 화학물질을 재료로 사용하는 합성의약품의 화학식과 화학반응을 그대로 따라하면 같은 성분을 쉽게 만들 수 있다. 화학반응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오차가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



김형자

<Newton> 편집장 출신으로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과학 칼럼니스트. <구명으로 발견한 과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품이 거친 임상시험을 생략한다.

단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지 알기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인체에 나타나는 효능·안전성이 똑같은지 시험을 통해 입증한 뒤 제네릭 약효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80~125% 범위에 들면 식품 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출시할 수 있다. 약효가 80%면 오리지널보다 약간 떨어지고 125%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제네릭이 단순히 오리지널 의약품을 짝어내듯 만들어낸 복제의 결과물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네릭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1만 개 넘는 제품이 출시됐다.

제네릭이 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21세기의 화두는 ‘바이오의약품’이다. 따라서 요즘 이슈로 떠오르는 복제약도 ‘바이오시밀러’다. 바이오시밀러는 ‘동일성’이 아닌 ‘유사성’을 요구한다. 바이오의약품은 대장균이나 효모, 동물 세포 등 살아 있는 세포에서 단백질을 뽑아내 생산한다. 생물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독성이 낮고 작용기전(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명확해 난치·희귀·만성질환에 큰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생물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상 오리지널과 똑같은 복제약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과 달리 오리지널 의약품을 만들 때처럼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를 다시 거친다. 때문에 제네릭보다 개발 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 약값이 비싸다. 하지만 업계는 비싼 바이오시밀러가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제네릭 vs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에 바이오시밀러까지 최근 세계 의약품 시장은 복제약이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의약품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복제약 사용이 늘고 있다. 특히 제네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효능 등이 동일하면서도 가격 부담이 적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2년 4119억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효능 등이 동일하면서도 가격 부담이 적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기 때문이다.”

9000만 달러(약 559조 원)에 달한다. 제약업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주요 합성 의약품 다수의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2030년 제네릭 시장 규모가 6133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세는 더 빠르다. 2023년 286억 2000만 달러(약 39조 원)에 달했던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연평균 17.8%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로스트앤드설리번(F&S)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향후 5년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 전망치는 2025년 500억 달러, 2027년 600억 달러, 2028년 765억 달러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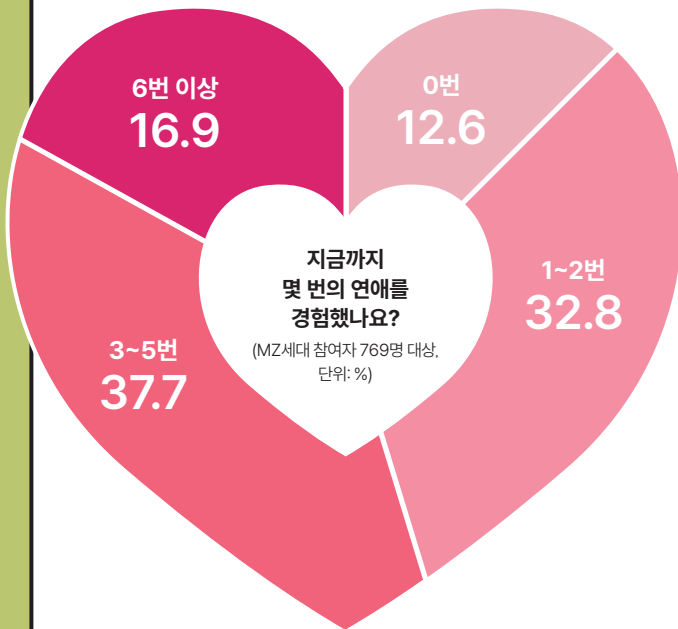
이는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연이어 만료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누적 매출액 1위 의약품인 애브비의 ‘휴미라’가 2023년 1월 특허가 만료됐고 이를 시작으로 50개 이상의 오리지널 의약품 독점권이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풀린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는 ‘항 종양괴사인자’로 일컬어지는 의약품 중 하나다. 2021년 한 해에만 320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치료제라 제약기업에서 인기가 높다. 미국 제약기업 암젠에서는 휴미라의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인 ‘암제비타’를 출시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바이오시밀러를 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는 총 19개다. 업체별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9개, 셀트리온이 6개고 LG화학과 종근당은 각각 2개의 바이오시밀러를 내놓았다. 국내 기업들은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유럽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 중이다. 단순한 시장 진출을 넘어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복제약 시장을 선도해나가기 위해 좀 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때다. [K]



## MZ세대의 솔직한 속마음? “연애와 결혼 상대는 달라” 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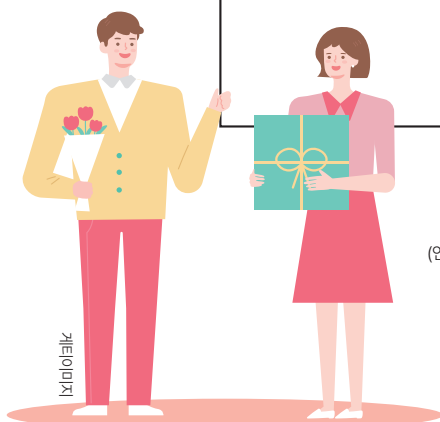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연애’는 사생활 문제를 넘어 사회적 관심사가 된 듯해요.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청춘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TV에서도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MZ세대에게 ‘연애’는 어떤 의미일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 연애기간? 10명 중 4명은 ‘1~3년’

MZ세대는 얼마나 많은 연애를 해봤을까요? 연애 경험 횟수를 물어본 결과 ‘3~5번 정도’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고 32.8%가 ‘1~2번’이라고 답했어요. ‘6번 이상’이라는 답도 16.9%에 달했어요.

반면 ‘연애 경험이 전혀 없다’는 대답도 12.6%를 차지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연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그 이유로는 ‘연애에 관심이 아예 없거나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졌다(54.7%)’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시간이 없어서(1.0%)’나 ‘돈이 없어서(2.1%)’ 등 외부적 요인보다 개인의 가치관에 의한 선택적 모태솔로인 경우가 많은 거죠. 또한 ‘연애 상대를 찾기 어렵다(30.9%)’, ‘자신감 부족(11.3%)’도 큰 이유인 것으로 보여요.



### 연애 상대를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됐나요?

(연애 경험이 있는 672명 대상,  
중복 선택 가능, 단위: 명)

553	일상 속 자연스러운 만남
285	친구 소개(소개팅)
131	동호회나 관심사 모임
76	온라인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15	부모님 등 주변 어른 소개(선)
10	기타

Z세대 kahyx0an6 님은 “연애를 시작하면 주변에서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낼 텐데 아직 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부담감이 싫어요”라고 말했어요.

연애 경험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우리 사회에서 MZ세대는 한 번도 연애한 적이 없는 모태솔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41.1%는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고 한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대답은 2.2%에 불과했어요. ‘조금은 연애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37.4%나 됐지만 과거에 개그 프로그램 등에서 모태솔로를 희화화하는 등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던 것과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어요. 각자 삶의 방식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듯해요.

MZ세대의 연애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연애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672명에게 질문한 결과 42%가 ‘1~3년’, 29%가 ‘6개월~1년’이라고 답했어요. 반면 ‘3년 이상’은 8.9%, ‘5년 이상’은 6.1%에 불과했어요. 졸업과 취업, 이직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몰려 있는 시기이다 보니 연애 지속기간도 짧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혼을 고려하기 전 적절한 연애 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응답자의 61.5%가 ‘1년에서 3년’이라고 답했어요. ‘연애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중요하지 않다(20.2%)’, ‘3년 이상(10.1%)’, ‘6개월~1년(8.1%)’이 그 뒤를 이었어요. ‘6개월 이하’라는 답은 0.1%뿐이었어요.

연인을 만난 경로는 ‘일상 속 자연스러운 만남(553명)’ 혹은 ‘친구 소개(285명)’가 가장 많았어요. ‘동호회나 관심사 모임(131명)’,

**연애 상대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애 경험이 있는 672명 대상)

**1위 성격**  
**36.6%**

**결혼을 고려하기 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애 기간은?**  
(MZ세대 참여자 769명 대상)

**1위 1~3년**  
**61.5%**

어피티가 **769**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 10월 18~24일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Q 연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지금까지 몇 번의 연애를 경험했나요?**

① 0번    ② 1~2번    ③ 3~5번    ④ 6번 이상

**연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시간 부족    ② 경제적 여유 부족    ③ 주변에서 적절한 사람을 찾기 어려움  
④ 자신감 부족    ⑤ 연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함

**연애 기간은 보통 얼마나 지속하는 편인가요?**

① 6개월 이하    ② 6개월~1년    ③ 1~3년    ④ 3~5년    ⑤ 5년 이상

**연애 상대를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됐나요?(중복 선택 가능)**

① 친구 소개(소개팅)    ② 부모님 등 주변 어른 소개(선)  
③ 온라인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④ 일상 속 자연스러운 만남  
⑤ 동호회나 관심사 모임    ⑥ 기타

**연애 상대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① 경제력    ② 성격    ③ 외모 및 매력    ④ 가치관  
⑤ 동일한 취미 또는 취향    ⑥ 재미    ⑦ 기타

**모태솔로(한 번도 연애해본 적 없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연애를 해본 적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조금은 연애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모태솔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④ 모태솔로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결혼을 고려하기 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애 기간은 얼마인가요?**

① 6개월 이하    ② 6개월~1년    ③ 1~3년    ④ 3년 이상  
⑤ 연애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는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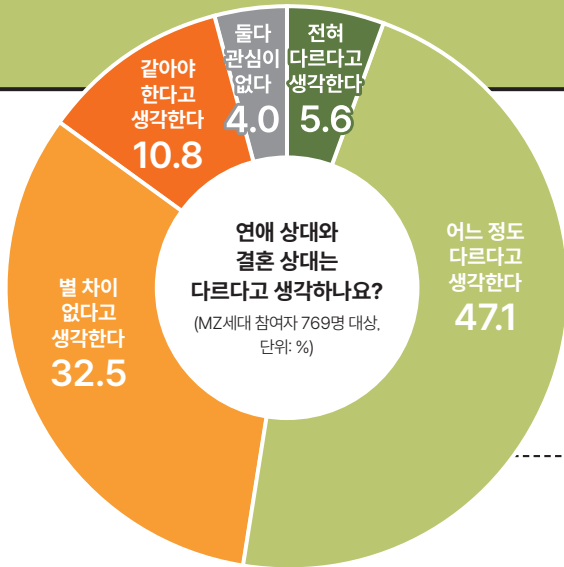
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③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④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⑤ 둘 다 관심이 없다

**요즘 연애 예능 프로그램(나는 솔로, 하트시그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매우 흥미롭고 자주 시청한다  
② 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가끔 시청한다  
③ 흥미가 없어서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  
④ 관심없고 아예 시청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미혼 남녀 주선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참여 의향이 있다  
② 긍정적이지만 참여는 망설여진다  
③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할 생각이 거의 없다  
④ 관심없고 절대 참여할 계획이 없다  
⑤ 지자체 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한다



#### 요즘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MZ세대 참여자 769명 대상, 단위: %)

매우 흥미롭고 자주 시청한다	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가끔 시청한다	흥미가 없어서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	관심없고 아예 시청하지 않는다
11.3	29.0	26.4	33.3

‘온라인 데이트 어플리케이션(76명)’,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의 소개(15명)’도 있었어요.

연애 상대를 고르는 기준은 뭘까요? ‘성격(36.6%)’, ‘외모 및 매력(28.4%)’, ‘가치관(24.1%)’ 순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잘 맞는 ‘성격’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취향에 맞는 ‘외모와 매력’은 설렘을 주며 비슷한 ‘가치관’은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눌 때 공감할 수 있게 해주죠.

또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52.7%가 ‘다르다’고 답했어요.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통념과는 조금 다른 결과인데요. 아마도 MZ세대가 연애와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결혼은 가치관과 생활방식, 경제력 등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더 복잡한 선택이니까요.

#### “남의 연애, 남이 주선하는 연애 다 관심 없어요”

‘나는 솔로’, ‘하트시그널’, ‘솔로지옥’과 같은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MZ세대도 이런 연애 매칭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반응은 엇갈렸어요. 10명 중 6명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흥미가 없어서 거의 안 본다’가 26.4%, ‘관심 없어서 전혀 안 본다’가 33.3%였거든요. 반면 ‘매우 흥미롭게 자주 본다’는 11.3%, ‘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가끔 시청한다’는 29%였어요. 연애 프로그램의 비현실적인 설정이나 갈등 상황 등이 공감보다는 거리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미혼 남녀 주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매우 긍정적이고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고작 2.6%에 불과했고 ‘긍정적이지만 참여는 망설여진다’가 33.2%로 나타났어요.

참여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M세대 리니레오님은 “나이가 들면서 생활 환경이 한정적으로 바뀌다보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주선해주는 모임에 참석하면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반면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할 생각이 거의 없다(22.5%)’와 ‘관심 없고 절대 참여할 계획이 없다(26.1%)’가 절반에 가까웠어요. 15.6%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시선의 가장 큰 이유는 ‘신뢰성’ 문제인 듯해요.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참가자의 신원’이었거든요.

Z세대 대왕밤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무척 섬세하고 개인적인 건데 지자체에서 집단 미팅에 나서는 것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다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답했어요.

Z세대 파송송님도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쳐두고 단체 미팅을 주선하는 등 피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같아서 유쾌하게 느껴지지는 않네요”라고 말했어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하지만 이제 MZ세대에게는 연애도 결혼도 모두 선택이 됐어요. 더 이상 사회적 압박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맞는 관계를 찾아가고 있어요. 어떤 선택이든 존중받길 바라고 MZ세대의 슬기로운 연애 생활도 응원해요. K



# KTV 방송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



정해진 틀은 없다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2024.10.21.-11.24.**

**대 상 1,000만 원**  
**총상금 2,100만 원**



## 시상내역

분야	TV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대상	1편 : 상금 10,000,000원 / 트로피 / 상장	
최우수상	1편 200만 원 / 트로피	1편 200만 원 / 트로피
우수상	2편 100만 원 / 상장	2편 100만 원 / 상장
장려상	3편 50만 원 / 상장	3편 50만 원 / 상장
총상금	총 13편 / 2,100만 원	

\* 상금은 현금(세금 공제) 및 상품권으로 지급

**공모기간** 2024.10.21.(월) - 11.24.(일)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제한 없음)

**공모분야** TV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 응모방법

세부안내 : [www.ktv.go.kr](http://www.ktv.go.kr) > KTV소식 > 공지사항

접수방법 : [project7@korea.kr](mailto:project7@korea.kr) (이메일)

**문의사항** 044)204-8131, 8127



아주대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노희원 씨

## 말기 환자의 마지막 친구 “13년 봉사 덕분에 내 삶이 아름다워졌어요”

호스피스 병동엔 의료진만 있는 게 아니다. 영양사부터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까지 다양한 이들이 오간다. 그중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의 꽃’이라 불린다. 말기 환자에게 다가가 마음을 열고 마지막 친구가 돼주기 때문이다. 노희원(77) 씨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최대한 자신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그게 내가 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2012년부터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봉사 중이다. 2011년 아주대병원이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직후부터 몸담았다. 햇수로 13년째. 봉사자들 사이에서 터줏대감으로 통한다.

10월 11일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상 소감을 묻자 노 씨는 “이 나이에 머리 하에서 상은 무슨 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웃었다.

아주대병원은 2019년 경기도 유일의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됐다. 병상은 총 11개다. 서른 명의 자원봉사자가 번갈아 환자를 돌본다. 노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를 맡고 있다. 그는 “목요일만 기다리며 산다”고 했다.

완화의료센터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본다고 들었다.

말기 암 판정을 받고 20~27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기도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된다. 머리 감기고 목욕 시키고 옷 갈아입히는 건 기본이다. 마사지 해드릴 땐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있으시라’고 한다. 27일을 채 못 채우는 환자도 왕왕 있다. 멀리 시골에서 버티다, 버티다 입원한 분들은 오자마자 ‘햇살방’으로 가기도 한다. 완화의료센터에서 숨이 끊어질 것 같을 때 가는 곳이다.

수없이 많은 죽음을 지켜봤겠다.

어느 날은 마사지를 하는데 환자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머지않았구나 싶었는데 다음날 돌아가셨다. 배가 시멘트처럼 굳었는데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주 고이 눈을 감았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환자도 있었다. 원체 과묵해서 말이 없던 분이였다.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고 기도도 해드렸더니 마음을 열었는지 처음으로 입을 뗐다. 나이도 어린데 이리 신세를 져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마사지를 받으면 병이 좀 나을까요?’하고 물어왔다.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시한부 환자에게 희망을 주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꼭 회복할 거다, 반드시 이겨낼 거다’라는 말은 금기어다. 대신 이렇게 답했다. 여기 계시





햇수로 13년째  
아주대병원에서 말기 환자를  
돌보는 노화원 씨.  
사진 C영상미디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최대한 자신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기도 하다.”

는 동안 편안하시라고 해드리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운명하셨다. 아주 평안한 표정이었다.

환자들이 다 고령자는 아닌가보다.

대학교 신입생도 있었다. 뇌종양 말기로 기억한다. 가망이 없어서 이곳에 왔다. 밤잠 설치며 옆에 있던 어머니께 다가가 ‘환자와 대화를 좀 해볼 수 있겠냐’고 했더니 ‘아이가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 종일 침대에 커튼을 쳐놓고 있었다. 결국 혼자 그 아픔을 끌어안고 1주일 만에 세상을 등졌다. 생각하면 지금도 짝하다.

여러 죽음을 목도하다보면 삶에서 부질없다 싶은 것이 있을 것 같다.

돈 좇아 아등바등 사는 거다. 아무리 부자라도 죽으면 소용없다. 단 1원도 만질 수 없다.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된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가고 나면 아무리 땅을 쳐도 돌아오지 않는다. 요즘은 보호자들이 병문안을 잘 안 온다. 입원할 때 잠깐 얼굴 비추고 마지막까지 찾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씁쓸한 현실이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

10여 년 전 갑자기 몸이 아파 구급차에 실려 간적이 있다. 아내가 옆에서 울면서 ‘하늘이 당신을 이렇게 데려가진 않을 거’라고 하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건강 잃으면 다 끝인데 안 아플 때 더 많이 돕고 나누며 살 걸 하는 후회였다. 회복하면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했고 퇴원 후 바로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으러 갔다.

봉사활동 전과 후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욕심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졌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싶다. 원래는 성격이 불 같았다. 아내는 내가 성질 한 번 부리면 아무 대꾸를 못했고 직장에서도 모진 상사로 이름났었다. 요즘은 나도 모르게 웃는 일이 많다. 자주 웃고 좋은 말을 하다보면 옆 사람도 기쁘고 내 삶도 운택해진다.

가장 보람되는 순간은?

보호자들이 엄마, 혹은 아버지가 ‘평안하게 소천하셨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다. 굳이 그런 말을 듣지 않더라도 환자의 편안한 얼굴을 볼 때 가장 보람된다. 가실 때도 그 모습이라면 더 바랄게 없다.

힘든 점은 없나?

1주일에 단 하루 봉사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힘들다고 여기면 나도 주변도 다 힘들어진 다. 지난 6월 새로 들어온 봉사자 두 분에게도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임무 대로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요즘은 예전만큼 자원봉사자가 없는 게 문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봉사요원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특히 젊은 봉사자를 찾기 어려워졌다. 아파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무겁다. 젊은 친구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인 이곳에서 환자를 들여보며 인생의 무게와 의미를 다시금 책정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정부에 전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지금도 말기 환자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다.

복지부 지원으로 이곳 완화의료센터 입원비 또한 환자의 부담은 적은 것으로 안다. 다만 이러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혜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능하다면 공기 좋고 새소리 들리는 지역을 적극 활용해서 머무는 동안 자연 속에서 치유받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봉사를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가자.’ 이 일을 시작하고 정한 인생 모토다. 아름답게 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만 둘 계획은 아직 없다. 문자 그대로 힘닿는 데까지 할 생각이다. 아직은 환자를 수발하는 데 무리가 없다. 팔 힘도 좋고 눈도 잘 보인다. **K**

박지현 기자

## ‘호스피스의 날’을 아시나요?

**말기 환자와 가족  
슬픔 덜고  
사랑을 채우다**

보건복지부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10월 11일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국립암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중앙호스피스센터장,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전국 호스피스전문기관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등록·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정착에 기여한 34명의 유공자 및 6개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총 40점)을 수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노희원 씨 등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원봉사자 5명과 고려대학교대학부속 구로병원 간호사 이은정 씨 및 충남 홍성의료원 사회복지사 김병호 씨 등 호스피스전문기관 종사자 11명, 관련 공공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4명 등을 포함해 총 20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6곳과 퇴직공무원재능나눔 봉사단 상담사 민광호 씨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6명,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명아 씨 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종사자 5명, 관련 공공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3명 등을 포함해 총 20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생애 말기 교육지원 사업’을 주제로 국립암센터 최귀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현행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에서의 생애 말기 돌봄에 관한 교육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오늘 행사는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장에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깊다”면서 “정부는 올해 마련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 특별한 가을 나들이 국민과 함께 뽑은 아름다운 민간정원 30곳

산림청은 10월 24일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선정, 발표했다.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통한 결과다.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정성을 다해 가꾸은 정원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원으로 전국에 15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나뉜다.

지난 7월 산림청은 민간정원의 아름다운 가치를 국민과 나누기 위해 각 시·도 및 정원분야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45곳을 아름다운 민간정원으로 1차 선정했다. 이후 전문심사단의 현장평가와 국민 1만 3356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해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정원은 정원별 특색에 따라 ▲자연지형을 잘 활용하거나 바다·호수 전망이 아름다운 '풍경 좋은 정원' ▲산책과 휴식하기 좋은 '쉼이 있는 정원' ▲우리나라 전통정원이거나 음악과 미술을 담은 '전통과 예술 정원'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축제가 열리는 '즐거이는 정원' ▲분재나 열대수목 등 독특한 볼거리가 있는 '색다른 정원' 등 5개 주제로 구분했다.

먼저 '풍경 좋은 정원'은 옥빛 바다가 어우러져 수채화 같은 풍경을 만드는 경남 통영시의 물빛소리정원, 섬으로 가는 뱃길과 원시림을 지나 펼쳐지는 바다 풍경이 일품인 전남 고흥군의 힐링파크 쑥섬쑥섬 등이 선정됐다. 숲과 기암괴석, 예술 오브제가 결합된 상상이 있는 정원인 전남 화순군 무등산 바우정원, 충북 옥천군 대청호 호수 위에 펼쳐진 천상의 정원 등 계곡·호수와 어우러진 정원도 포함됐다.

정원을 거닐며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으로는





1 전남 구례군 '쌍산재'. 2 전남 고흥군 '힐링파크 축섬축섬'. 3 경남 함양군 '하미양정원'. 사진 산림청

명품 조경수 아래 풍성한 수국길이 일품인 충북 청주시의 공간정원, 경북 경주시의 야생화일기, 다래이논과 돌담 위 그려진 모네의 정원과 유럽식 풍경화가 일품인 경남 남해군의 섬이정원 등이 선정됐다. 경남 김해시의 카사벨라정원은 향긋한 차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선정단의 추천을 받은 곳이다.

전통과 예술 정원이 있는 곳으로는 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난 전남 구례군의 쌍산재, 반야원 등이 선정됐다. 모두 고택과 대나무길을 걸으며 느끼는 옛 정취가 일품인 곳이다.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바꿔 미술관과 정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고흥군의 하담정과 동화 같은 숲속 도서관에서 음악회가 펼쳐지는 경남 고성군의 그레이스 정원도 포함됐다.

축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정원도 눈에 띈다. 충북 괴산군의 괴산트리하우스가든에서는 정원교실이 열리고 통영시의 해솔찬정원에서는 우리 식물을 활용한 교육과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색다른 정원으로도 다양한 곳이 선정됐다. 통영시의 동백커피식물원은 열대식물과 무늬동백 등 이색적인 식물을 보는 재미가 큰 곳이다. 난대·아열대 온실카페와 영국식 정원으로 유명한 울산 울주군 온실리움도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민간정원이 공공정원과 함께 관광자원이자 휴식 공간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저마다 특별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민간정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떠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누리(garden.koag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 임언영 기자

##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 풍경 좋은 정원

자연지형과  
주변 경관을  
잘 활용한 정원

- |             |        |
|-------------|--------|
| ① 무등산 바우정원  | 전남 화순군 |
| ② 물빛소리정원    | 경남 통영시 |
| ③ 비밀의 화원    | 경북 칠곡군 |
| ④ 천상의 정원    | 충북 옥천군 |
| ⑤ 타사의정원251  | 경기 가평군 |
| ⑥ 힐링파크 축섬축섬 | 전남 고흥군 |

### 섬이 있는 정원

정원을 거닐며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

- |          |         |
|----------|---------|
| ⑦ 공간정원   | 충북 청주시  |
| ⑧ 문가든    | 전남 해남군  |
| ⑨ 베케정원   | 제주 서귀포시 |
| ⑩ 섬이정원   | 경남 남해군  |
| ⑪ 야생화일기  | 경북 경주시  |
| ⑫ 짝박골정원  | 강원 인제군  |
| ⑬ 카사벨라정원 | 경남 김해시  |

### 전통과 예술 정원

전통과  
예술이 있는 정원

- |            |        |
|------------|--------|
| ⑭ 그레이스정원   | 경남 고성군 |
| ⑮ 반야원      | 전남 구례군 |
| ⑯ 쌍산재      | 전남 구례군 |
| ⑰ 이화재      | 충남 아산시 |
| ⑱ 하담정      | 전남 고흥군 |
| ⑲ 화가의 정원산책 | 전남 순천시 |

### 즐거는 정원

축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는 정원

- |             |        |
|-------------|--------|
| ⑳ 괴산트리하우스가든 | 충북 괴산군 |
| ㉑ 성림정원      | 전남 보성군 |
| ㉒ 죽화경       | 전남 담양군 |
| ㉓ 하미양정원     | 경남 함양군 |
| ㉔ 해솔찬정원     | 경남 통영시 |

### 색다른 정원

난대식물, 분재 등  
특별한 볼거리(식물)가  
있는 정원

- |               |        |
|---------------|--------|
| ㉕ 동백커피식물원     | 경남 통영시 |
| ㉖ 들꽃마당        | 전북 정읍시 |
| ㉗ 생각하는 정원     | 제주 제주시 |
| ㉘ 아가페정원       | 전북 익산시 |
| ㉙ 온실리움        | 울산 울주군 |
| ㉚ 천개의 향나무숲 정원 | 전남 구례군 |

## 20년 직장 나와 제 사업을 하려 합니다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gjiyultv@gmail.com으로  
보내면 됩니다.  
채택된 사연은  
'신기울의 마음 상담소'  
지면을 통해  
상담해드립니다.

Q

내년 봄에 퇴사를 앞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년 넘게 회사에 몸담아오면서 만들어놓은 인맥과 거래처가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홀로서기를 하려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 말을 되새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간절함은 이뤄지고 어떤 사람의 간절함은 이뤄지지 않을까? 이뤄지지 않는 사람은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 저는 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저의 바람이 어떻게 하면 이뤄질 수 있을지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욱·가명, 48)

A

간절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간절함입니다. 첫 번째, 생각의 간절함은 간절함이 단순한 바람을 넘어 사고방식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에 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면 목표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과 축적된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향을 잡게 되고 목표를 향한 의지도 점점 강해집니다. 생각의 간절함은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생각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뤄야 하는 목표와 진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밀려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을 때처럼요. 이때의 간절함은 작은 위기에도 뿌리 없는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마음의 간절함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적 또한 뚜렷할 때 생깁니다. 외부의 기대나 의무감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열망과 소망이 간절함을 만드는 거죠. 마음의 간절함은 생각의 간절함과

“간절함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킬 때 동욱 님이 세운  
지금의 계획이 기적처럼  
멋진 결실을 이루게 될  
겁니다. 간절함이 이뤄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랄게요.”

는 달리 주어지는 보상 없이도 지속해서 유지됩니다. 그것을 이루려는 과정 자체가 큰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할 뿐입니다.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며 다시 일어서야 하는 동력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여도 실천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조급함과 초조함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발목을 잡을 때입니다. 외줄타기에 비유하면 진심으로 외줄을 타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했지만 실제로 높은 곳에 매달린 외줄 앞에서는 떨어질까봐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한 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런 불안함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거죠.

### 생각과 마음의 간절함을 넘어

그래서 행동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함이 생각과 마음을 지나 실제의 행동에 닿는 것이죠. 두려움과 초조함을 이겨낼 만큼 강렬한 마음이 끈기 있게 이어질 때 행동의 간절함은 일어납니다. 이때는 행동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스며듭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내가 세운 계획을 철저히 따르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내가 품고 있는 절박함이 드러나고 두려운 일도 망설이지 않고 해내는 용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선불리 판단하지 않으며 인정에 휘둘리거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필요한 정보를 차분히 확인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머지않아 원하던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의 간절함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생각의 간절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깊어지면 행동 하나하나에도 간절함이 묻어나게 됩니다. 동욱 님은 지금 ‘생각의 간절함’ 단계에 있습니다. 20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첫발을 내디디며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구상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이기에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물론 상상을 통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만 체험으로 만들어진 깊이에 비해 무게감과 진정성은 떨어집니다. 하나하나 실제로 부딪치며 겪어봤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울림이 일어나고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일상의 습관과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목표를 향한 걸음걸음에는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가능성도 더 커지고요.

동욱 님, 간절함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킬 때, 동욱 님이 세운 지금의 계획이 기적처럼 멋진 결실을 이루게 될 겁니다. 간절함이 이뤄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랄게요. 동욱 님의 새로운 출발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를 응원하겠습니다. **K**



#### 신기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인드풀링(Mindfulness) 대표이자  
‘신기울의 마음치집’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부모가정 모임인 ‘그루밍’  
교육센터장이다.



## 전남 담양군 3대 명품 숲

| 관방제림 |

| 메타세쿼이아 길 |

| 죽녹원 |



(왼쪽) 관방천의 제방을 따라 이어진 '관방제림' 산책로. (오른쪽) 반세기 수령의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도열한 듯 서 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 이 곳 의 가 을 은 소 리 부 터 다 르 다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가을이 절정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뒤늦게 시작된 '지각 단풍' 노선도 하루가 다르게 남하하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을 숲의 계절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 문화매력 100선 '로컬100' 중 지역 문화유산에 선정된 전남 담양군의 3대 명품 숲의 가을을 만나러 떠났다.

대숲이 군무를 추면 신비로운 소리가 들린다. “휘이”, “짜아” 하고 마치 숲이 휘파람을 부는 것 같다. 그 청아한 초록색 소음에 복잡했던 고민들도 잠시 숨을 고른다. 음이온이 풍부하고 산소 발생량이 많다는 대숲의 효능·효과 때문만이 아니어도 대숲에서의 산책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그저 조용히 대숲을 거닐었을 뿐인데 명상가가 된 듯 마음이 평온해진다.

담양군은 예부터 대나무골이라 불렸다. 마을마다 대숲을, 대숲마다 마을을 품고 있다. 죽녹원, 삼다리, 태목리, 만성리, 행성리, 소재원 등이 모두 대숲으로 이름난 곳들이다. 삼다리가 알음알음 조용히 찾는 곳이라면 죽녹원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찾는 담양의 대표 명소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아 'K-숲'이란 별칭도 얻었다. 로컬100에 선정된 담양 3대 명품 숲 중 첫 번째 코스는 죽녹원이다.

### 대나무 숲 대표 '죽녹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빼곡한 대나무 숲이 마중 나온다. 성인산 자락 16만㎡ 규모의 대나무 숲을 오롯이 즐기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망대 카페인 봉황루를 지나 나무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오르다보면 대숲이 바람에 이리저리 몸을 흔든다. 대나무와 대나무, 숲과 숲 사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은 덤이다. '숲멍' 하는 사이 움츠렸던 가슴이 펴지고 불안했던 들숨과 날숨이 안정을 찾는다.

죽녹원은 분죽·왕대·맹종죽 등이 자생하던 대나무 군락지를 정비해 2003년 5월에 문을 열었다. 대숲 사이 총 2.4km의 산책로만 걸어도 알차게 즐길 수 있다. '죽마고우길'부터 '운수대통길', '사색의 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등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길을 걷노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산책로가 아니어도 죽녹원의 대숲에선 한번쯤 길을 잃





8개 테마가 있는 죽녹원의 산책로





대나무마을이라 불리는 담양에서도 명품 대숲으로 유명한 죽녹원.

어도 좋을 것 같다. 혼자만의 사색을 원한다면.

대숲 사이엔 죽림폭포, 한옥체험장 등 볼거리나 쉬어갈 만한 공간들이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진다. 대숲을 실컷 거닐다가 죽로차체험관에서 다도 체험을 하고 한옥카페 '추월당'에서 뗏잎 차, 뗏잎 라테나 뗏잎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도 즐겁다.

죽녹원 후문과 가까이 있는 시가문화촌에도 가볼 것. '정자(亭子) 도장 깨기'에 도전해볼 만하다. '면양정가'를 지은 송순의 '면양정',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으로 대표되는 송강 정철의 '송강정'과 '식영정', 소쇄원의 '광풍각', '환벽당' 등 조선 중기 시가문학의 산실인 정자들을 재현해냈다. 각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힐링 포인트다. 2022년엔 시가문화촌 인근에 매란국죽 사군자를 식재한 정원을 비롯해 숙박이 가능한 한옥, 누정과 누각, 계류 등을 갖춘 '사군자 정원'이 더해져 이색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 300년 역사 자랑하는 숲 '관방제림'

죽녹원을 나와 도로 하나를 건너면 또 다른 담양 명품 숲 중 하나인 '관방제림'과 만난다. 천연기념물인 관방제림은 6km의 관방천(담양천)의 제방인 '관방제'를 두른 둑길 중 2km 구

간에 걸친 풍치림을 말한다. 조선 인조 26년(1648) 때 부사 성이성이 영산강 관방천의 수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축조하고 나무를 심은 것이 시작이다. 이후 철종 5년(1854)에 부사 황종림이 다시 이 제방을 축조하면서 그 위에 숲을 조성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관방제림(官防堤林)이라는 이름은 제방을 쌓을 때 관비(官費)를 사용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300여 년이 흐른 지금 관방제림은 다양한 수종이 빼곡히 자리 잡으면서 명품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다. 몸통에 고유번호표를 단 100여 그루의 푸조나무, 30여 그루의 느티나무를 비롯해 팽나무, 뽕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산책로를 따라 이어져 사계절 운치를 더한다. 그중엔 최고 수령 300여 년을 자랑하는 나무도 있다. 비교적 조성 당시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 2004년에는 '제5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한 관방제림은 바람이 없는 날 천에 데칼코마니처럼 풍경을 찍어낸 반영이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즈음이면 전국 사진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호수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천과 천을 두른 빼곡한 나무들이 가을 서정을 더한다. 제방 위의 흙길 산책로



는 맨발로 걷는 이들이, 천을 따라 이어진 나무 데크 산책로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이들이 많다. 서너 명이 함께 전동бай크를 타고 영산강 자전거길을 따라 관방제림을 둘러보는 것도 색다르다. 대여소는 죽녹원 입구 맞은편에 있다. 관방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재미난 놀이터다.

### 이국적 정취의 '메타세쿼이아 길'

관방제림 산책이 끝나면 다음은 메타세쿼이아 길을 즐길 차례다. 죽녹원부터 시작해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길까지 일대가 거대한 숲, 생태 벨트를 이루고 있다. 동양적인 숲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죽녹원과 달리 메타세쿼이아 길은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한다. 메타세쿼이아는 은행나무와 함께 고대부터 존재해온 '화석나무' 중 하나. 아직까지 수령도 밝혀지지 않은 '신비주의' 나무다. 이런 메타세쿼이아가 국도변 양쪽으로 도열하듯 8.5km 이어진다. '어디선가 본 길이다' 싶다면 영화 '화려한 휴가'일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배경으로도 익숙할 만큼 유명한 길이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은 1972년 담양군에서 국도24호선, 군청~금성면 원울삼거리 5km 구간에 5년생 메타세쿼이아 묘목 1300본을 식재하며 조성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우여곡절도 있었다. 2000년 광주~순창 간 국도 확장 공사 당시 사라질 위기를 겪었다가 당시 군민들, 지역단체의 노력으로 우회로



관방제림과 함께 관방천의 이국적인 풍경도 즐길 수 있다.

가 만들어지며 보존될 수 있었다.

드라이브를 한다면 차창 밖으로 훑훑 지나가는 풍경이 아쉬울 테니 이 길의 매력을 만끽하려면 자전거 타는 것을 추천한다. 자전거는 담양읍사무소(무료)나 향교 부근(유료)에서 대여할 수 있다.

죽녹원에서 '숲멍', 관방제림 나무 그늘에 앉아 '물멍', 메타세쿼이아 길 자전거 여행까지 하면 하루가 모자란다. 숲도 식후경. 명품 숲 주변에 모여 있는 담양 맛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죽녹원 부근엔 담양의 대표 메뉴인 떡갈비에 대통밥(대나무통밥)을 내는 식당을 비롯해 국수거리도 있다. 유명한 창평시장 국밥거리리는 죽녹원에서 차로 20분 거리이니 식도락 여행은 덤이다. **K**

글·사진 박근희 객원기자



### 또 다른 로컬100 전남 신안군 퍼플섬

전남 신안군 퍼플섬도 로컬100 '지역 문화유산'에 선정됐다. 퍼플섬은 신안군 안좌도 부속 섬인 반월도와 박지도를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마을 내 건물의 지붕은 물론이고 도로와 섬을 잇는 다리까지 섬 전체를 보랏빛으로 단장해 이색 여행지로 떠올랐다. 컬러마케팅이 성공하면서 2021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에 선정되기도 했다. 많은 색 중에서도 보라색을 택한 이유는 반월도와 박지도에서 많이 나는 도라지와 꿀풀 꽃, 콜라비가 보라색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세 개의 섬은 해상보행교로 이어져 편히 오갈 수 있다. 섬 입도 시 보라색 옷이나 신발, 모자를 착용하면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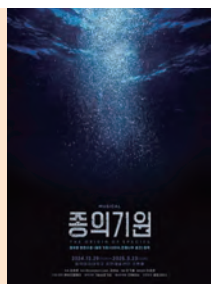
## 국악, 클래식, 록… 여섯 가지 색깔의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2주년 맞아 정선에서 '2024 아리랑 세계를 잇다' 공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의 가치를 조명하는 공연이 열린다. 강원 정선군은 11월 15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2024 아리랑 세계를 잇다' 공연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등재 12주년을 맞아 아리랑의 전승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아리랑 3대 고장인 정선군, 진도군, 밀양시가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해마다 함께 공연을 올리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참여해 새롭게 해석한 아리랑을 선보인다. 국악, 클래식, 록, 일렉트로니카, 민속음악 등 다양한 장르와 형식으로 표현한 여섯 가지 색깔의 아리랑을 만날 수 있다.

먼저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온 김덕수의 '판굿 아리랑판타지'와 한국 영화음악의 거장 이동준의 'Beyond The Wall : 아리랑',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신현준의 '정선아리랑' 등이 무대를 장식한다. 이어 재일동포 아티스트 민영치가 과거와 현재의 정선을 표현한 '천자고무(天子鼓舞)' 정선, 국악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 인기를 끌고 있는 '동양고주파의 만화경 : 밀양아리랑', 전라도 지역의 무속음악과 노동요를 기반으로 한 '우리소리 바라지의 진도아리랑' 무대가 준비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누리집(jacf.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뮤지컬 종의 기원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다. 스릴러 소설의 새 지평을 열어온 정유정 작가의 '악의 3부작' 중 완결판으로 소설은 사이코패스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된다. 뮤지컬에서는 주인공 한유진을 두 명의 배우로 표현하고 그를 둘러싼 인물들을 통해 인간이 가진 악의 본능을 날카롭고 거침없는 시선으로 파헤친다. 2년 만의 재연으로 기존 스토리에 에피소드와 넘버를 추가했다.

**기간** 12월 29일~2025년 3월 23일

**장소**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코튼홀



### 전시 순간에서 영원으로

1982년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시기부터 현재까지 자료 기증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다.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된 주요 기증자료 원본 62점을 특별 공개한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조선어 학회의 사전 집필 원고이자 보물로 지정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 3·1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저술된 '한국독립운동사략' 등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기간** 11월 30일~12월 1일

**장소** 독립기념관



### 전시 2024 부산국제아동도서전

국내 최초로 국제아동도서전이 부산에서 열린다. 국내외 아동 전문 출판사와 단체 등 16개국 170여 개사가 참가한다. 아동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을 받은 백희나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 '칼데콧상 명예상'을 받은 차호윤 작가가 현장에서 독자들을 만난다. 관람은 무료.

**기간** 11월 28일~12월 1일

**장소** 부산 벅스코 제1전시장 2홀

## 첼리스트 홍진호와 '도도새 작가' 김선우의 만남

### '첼로의 숲'에 도도새 날다



첼리스트 홍진호, 사진 크레디아

첼리스트 홍진호가 2년 만에 단독 콘서트 '첼로의 숲'을 연다. 공연은 11월 17일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다. '첼로의 숲'이라는 제목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백사실계곡에서 영감을 받아 지었다. 홍진호는 "백사실계곡을 아침에 종종 가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적이 없다"며 "온전히 혼자일 때 계곡에서 듣는 자연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첼로가 존재하는 숲'이라는 의미에서 '첼로의 숲'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첼로의 숲'은 10월 17일 발매한 새 앨범의 타이틀이기도 하다.

'첼로의 숲'은 음악에 그림을 결합한 전시형 콘서트다. 일명 '도도새 작가'로 불리는 김선우와 협업했다. 홍진호가 연주하는 동안 도도새 그림이 영상으로 펼쳐진다.

홍진호는 "클래식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다"며 "김선우 작가가 함께 만드는 이번 공연은 좀 더 친절하고 편안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작가는 "예술가는 자아가 강하다보니 혹시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결과적으로 나의 예술 영역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2019년 JTBC 음악 예능프로그램 '슈퍼밴드'에서 호피폴라 멤버로 우승을 차지한 홍진호는 이후 판소리, 팝,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해오고 있다. 홍진호는 "특유의 슬픈 감성을 지닌 첼로가 다른 악기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미지가 상상됐다"며 "첼로는 다른 어떤 악기들보다 무용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무용 동작이 어우러진 무대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서경리 기자



저자 정종수(플루토)

### 도시 일회용 지구에 관한 9가지 질문

환경 전문가인 저자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논란이 되는 환경 이슈를 설명한다. 과학기술과 행동으로 인류세의 종말을 막고 지구와 함께하는 법 등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생물의 다양성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관련 문제들의 원인과 영향, 해법을 전한다.



저자 김다은·정윤정(돌고래)

### 도시 동물의 자리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시대, 네 곳의 생추어리에서 '서로돌봄'의 가능성을 엿본다. 생추어리는 안식처, 보호구역이라는 뜻이다. 책은 동물 입장에서 더 좋은 환경을 고민하면서 인간이 동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K]

서경리 기자



##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화창한 주말 친구들과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을 찾았어요. 시화호에서 요트와 보트, 카약을 타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치 외국을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었습시다. 날씨도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이정미 서울 관악구

## 공감 칭찬합니다!



**777호** '청롱이의 정책툰'에서 30대 이상 성인들을 위한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간 많은 복지정책이 청년세대와 노인 세대만을 대상으로 해서 중장년층으로서 다소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은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격언처럼 현장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유지선 전남 순천시



**776호**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의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부상을 입은 와중에 보이스피싱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어려움 끝에 포상금을 받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부디 끝까지 잘 싸우길 바랍니다.

박정현 경기 수원시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youtube.com/weeklygonggam

blog.naver.com/mcst-pr

facebook.com/wegonggam

v.daum.net/channel/3094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와 '공감 칭찬합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13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내일을 향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gov  
expo

2024  
11.13.  
수 | 금  
15.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함께 연는 지방시대 환영하는 대한민국

##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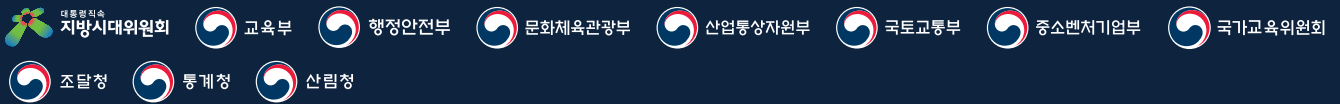
| 일 시 | '24. 11. 6.(수) ~ 11. 8.(금) 3일간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송암스포츠타운)

| 온라인 | [www.regionexpo.kr](http://www.regionexpo.kr)



### 주최 |



### 주관 |

